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그래서, 왜 < 강령 > 인가

아나키스트운동의실천적방법론에관하여

C.Necromancy of 아나키스트연대

C.Necromancy of 아나키스트연대
그래서, 왜 < 강령 > 인가
아나키스트운동의실천적방법론에관하여
2020

아나키스트연대가출판준비중인 < 아나키스트총동맹의조직적강령 >
한국어판의역자후기
아나키스트연대가출판을준비중에있는 < 아나키스트총동맹의조직적
강령 > 역자후기. 아나키스트연대의회원이직접작성함.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아나키스트총동맹의조직적강령』은우크라이나의혁명반군운동이 패배한후, 프랑스로망명중이던네스토르마흐노를포함한러시아아나키스트그룹이작성한것이다. 이문건은 1924 년당시에도충분한논란이되었다. 마흐노는우크라이나에서함께투쟁하였던브세보폴트미하일로비치아이헨바움 (활동명볼린) 과의격렬한논쟁을거쳐야했다. 이탈리아의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에리코말라테스타역시 『강령』 에반대했다. 애초에‘아나키스트조직’이라는말만들어도질겁하는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반란적아나키스트들에대해서는, 그저말을말자.

『강령』 은결코완전한문건이아니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상은위협하다. 궁극적으로본인의아나키즘에입각하지않은‘아나키스트’들을‘아나키스트가아니’라고말하는것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내가그들에게동의하건말건, 반란적아나키스트들도, 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도‘아나키스트’다. 함께투쟁할수는없겠지만말이다. “혁명의방어”는분명한군대의재건이다. 혁명은, 그혁명에동의하는인민대중의자체적역량으로만방어할수있다. 그역량을뛰어넘는“방어”를지도력과지휘력과신묘한전술로이루어낼수는없다. 지휘통제체계를통합하는것이인민대중의역량을뛰어넘게할수있다면, 우리가노동자국가와프롤레타리아독재를받아들이지못할이유는또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강령』 이그토록논란을불러일으켰으며당대에는그다지큰조류를만들어내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 『강령』 을기반으로한흐름은오늘에도분명하게남아있다. 아니, 어쩌면, 아나키즘의각분파들중에서, 결국가장활동적이고강성한세력으로남아있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이것은왜인가. 대체 『강령』 이무엇이기에, 출판이된지 100 년이까운시간이흘렀음에도, 여전히그이야기가유의미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강령』 이주장하는바는다음과같다.

하나. **아나키즘운동을통일된강령에근거한하나의조직으로묶어내어야한다**는것. 이는 1917 년이후러시아의아나키스트운동이분산되고각자의방법론으로각자투쟁하다가결국한순간에청산되어버린경험에근거한다. 어제는 《전국아나키스트총연맹》에서공장위원회를통한노동자자주경영을이야기하였는데, 오늘은 《전국아나키스트연방》에서모든생산시설에대한폭탄테러를이야기하고있으면, 아나키즘이과연대중을설득할수있냐는이야기다. 디엘로트루다는그강령의내용이계급투쟁을기반으로한아나키즘이어야하고, 대중의무장투쟁을기반으로해야하며, 생산의노동자자주통제에기반으로해야한다고제시하지만, 필자본인의동의여부와는무관하게그것은강령의요체가아니다. 시대와조건에따라그내용은달라질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강령』 의요체는, 사회혁명의방법론을계급투쟁에두건, 개인적각성에두건, 인민의자발적

다. 대중을조직해내는것은모든형태의사회변혁운동을집행함에있어반드시필요한과업일뿐, 그자체가목적적인것은아니다. 『강령』의목적이대중의의사를대변하여대중을지도하는정부를건설하는것이라면, 강령은아나키즘적불세비즘인것이맞다. 하지만그렇지않다.

마지막으로이야기해야할지점은, 2021 년조선반도에서아나키즘에입각한사회변혁적대중운동을이야기하는우리에게가능한대중운동의전술적방법론이무엇인가에관한지점이다. ‘통합’의방법론은, 그유효성의여부를떠나, 최소둘이상의아나키스트이론이존재해야가능하다. 2021 년조선반도에서는불가능한선택지다. 개인의자유주의에의한코뮌을이야기하고싶으면, 국가와자본의통제에서벗어난코뮌의상을단하나라도보여주고이야기하면좋겠다. 2021 년조선반도의아나키즘운동은, 그러한코뮌을건설할수있을정도의인자도, 물질기반도, 콘텐츠도, 연방도그무엇도갖추지못했다. ‘노동대중의의지로작동하는혁명적생디칼’을사회혁명의이상으로말한다면, 그생디칼이언제가올지모르는사회혁명의그날까지혁명적일수있는추동력이어디서나오는지설명해달라. 1907 년마냥노동조합의건설자체가탄압의대상이라면, 노동조합의건설자체가의미있는과업이겠지만, 2021 년조선반도는타협적조합주의를하기에는너무나도훌륭한토양을갖추고있다. 그생디칼들의총파업이사회혁명의날을열것이라고이야기한다면, 전술적단결이없이어떻게총파업을만들어낼것인지알려달라.

결국, 2021 년조선반도를살아가는우리에게필요한것은, 동일한강령에동의하는아나키스트대중·활동가들의조직을통한대중운동에의전술적개입이다. 그리고다시한번, “아나키즘은아름다운유토피아도, 추상적철학의이데아도아니다. 아나키즘은노동대중의사회운동”이다. 아나키스트가바라보아야하는것은, 지구반대편의, 혹은 100 년전의사회운동지형이아니라, 2021 년오늘조선반도의운동지형이다. 그렇기에나는다시한번, 『강령』을말한다.

언젠가, 정말로언젠가, 『강령』을이야기하는내가, 대중의사회운동에서‘권력’이되고, 대중을지도하려할지도모른다. 불린이, 말라테스타가, 밥블랙이 『강령』에대하여제기했던문제가실제로나타날지도모른다. 하지만나는그런일이발생할때나를타도해줄아나키스트동지들의투쟁을믿는다. 그렇게 『강령』마저타도될때, 혹은 『강령』이 스스로해소할때, 그토록바라마지않는노동대중의해방에한발더다가갈수있으리라믿는다.

무장봉기에두건, 그것에합의하는아나키스트들이하나의조직에모여하나의전술에따라하나로활동해야한다는것에있다.

하나. 그조직에소속된아나키스트활동가들이대중조직에침투하여대중조직을강령의방향으로추동하여야한다는것. 아나키즘의요체가대중의직접적이고자주적인결정에있음은분명하다. 『강령』도이를부정하지않는다. 아니, 오히려“노동해방은오로지광대한노동대중의직접적혁명투쟁과자본주의체계에대항하는계급조직을통해서만가능하다”고말한다. 하지만현재의노동대중이, 지난수천년의인류역사를거치며‘지도되는것에익숙하여져버린’2021 년의노동대중이, 지금그억압의속박을풀어낸다고해서, 자주적결정을익숙하게할수있는가? 당장대표적인노동대중의자발적조직인노동조합을보자. 오늘의임금투쟁을더어갈것인지, 아니면현재까지받아낸양보에우선만족하고다음의투쟁을위해조직을가다듬을것인지에대한판단이, 조합원들에게“마음껏해보세요”라고말한다고이루어지던가? 그렇지않다. 오히려그렇게내버려두었을 경우, 지금까지의관성에따라, 대표자를세우고, 그대표자에게의사결정권을위임하고, 그판단에소극적으로복무함에그치게되는경우가많다. 대중이이것을선택하였다고하여이것을그저수인하는것이아나키스트의방향성인가? 『강령』이부정하는것은이것이다. 『강령』은아나키스트활동가들이, 대중을조력하여, 대중의자주적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 대중이또다른억압을‘자주적으로’구성하지않을수있도록추동해야함을이야기하는것이다.

그렇기에결국 『강령』이이야기하는아나키즘은, “아름다운유토피아도, 추상적철학의이데아도아니다. 아나키즘은노동대중의사회운동”이다. 대중운동의현상을직시하고, 그현상을바탕으로아나키스트의대중운동의상을고민하자는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이바라는, 관념의세계에만존재하는, 이상적대중에대해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 현재의이저주받을체제속에서교육받고, 구성되어온실체로서의대중을바라보아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그대중이, 현재의조건에서, 자신이변혁의주체가될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음은분명한사실로존재한다. 나아가, 스스로가조직할수있음을, 자기노동의조건과삶의조건을결정할여지가있다는것을인지하지못하고있음또한, 물리적사실로존재한다. 기껏조직을만들어놓은후, 법의규정을, 자본의상생운운을, 국가의폭압을넘어선요구를만들어내지못하고‘합법적’조직의테두리로쫓그라드는경우가많은것또한자명한사실이다. 요구를만들어내는데까지성공했다하더라도, 그요구를쟁취하기위한투쟁의방법론을찾아내지못하고, 마찬가지로‘합법투쟁’에매몰되어보수화되고형해화形骸化되는경우역시무수하게많다.

아울러 이러한 대중을 객관적 조건으로 바라볼 때, ана키스트들은 그 조건에 순응하고 대중의 결정이라는 흐름에 복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조건 속에서, 우리의 이상을, 우리의 최대 요구를 발화하며 대중을 우리의 방향으로 끌어오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강령』은, 여기에서 후자를 선택하였기에, 오히려 『강령』을 ‘전위당을 옹호하고’ 대중을 지도하려 하는 ‘유사 불세비키’라 부르는 자들의 이데올로기보다 한층 더 대중 지향적 운동이 된다.

볼린은 ана키즘의 ‘통합’을 주장했다. ана키스트들이 하나의 토론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천천히 점검해가며,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모색하여 가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은 포괄하는 대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작아지고 작아져, ‘국가와 자본에 반대한다’는 단순한 제만이 남게 되는 순간, ‘통합’의 운동성은 삭제된다. 설혹 ана키스트들이 민족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도, ана키스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복무하여 제도와 체제를 보다 자유의 지주의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라도, 그것이 국가와 자본에 반대하는 한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혹은 이것보다는 수위가 낮을지라도) 주장들을 ‘통합’해나간 결과, ана키즘은 대중 운동에 밀착하지 못한 지식인 (혹은 유사 지식인)들의 지적 유희에 불과하게 되었다. 만약 특정한 주장들을 ‘통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유사 ана키즘’이라 취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어째서 ‘통합’인가. 광의의 『강령』인 것이지.

말라테스타는 ана키즘 운동의 조직이, 조직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 책임의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은, 개인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조직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조직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는, 그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결정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바꾸어내지 못하였다면 조직을 분열해낼 자유가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럼에도 조직적 단결이 필요하므로 조직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개인적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이, ‘조직적 책임’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 대중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ана키스트 활동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긍정하면서 ‘조직적 원칙’이 아닌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여 버리는 것은, 너무도 낮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이다. 결국 어리석은 대중을 지도하시는 하나의 신 하신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말라테스타가 『강령』에 대해 마호노와 논쟁할 때에는 “아나키스트 조직의 행정부는 그 조직을 승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행정권력도, 지도력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던 그 말라테스타가, 단 1년이 지난 후 “하지만 그들 (대중들)의 지성과 주도권에 너무 크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회피”하면서 “군중이 바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면, 자주적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말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듯하다.

모든 층위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며 “조직적 단결”의 필요성마저 부정했던 개인주의적 ана키스트들에 대해서는, 음, 그래서 착취당할 자유랑 착취할 자유마저 긍정해서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셨나요? 라고 묻고, 더 말을 하지 말도록 하자.

“하지만 불세비키가 러시아 인민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ана키스트들이 불세비키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참으로 옳다. 그래서, 강령주의는 ана키즘적 불세비즘인 것인가. 불세비즘의 요체는 전위당의 집권과 그를 통한 대중에의 지도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의지를 대변하는 노동자 계급 정당인 대중을 지도하고, 대중이 그 지도에 따름으로써 계급적 의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총동맹》은 대중의 의지를 참칭하지 않는다. 총동맹은 구구성원, 또는 구성 조직의 의지를 대변한다. 그 의지로 대중을 설득하고 추동해낸다. 대중 속에서, 대중으로서, ана키스트적 의지를 가진 대중으로서 대중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대중이 ана키스트적 의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나키스트적 의지’는 대중을 ‘지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최소한 『강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아나키스트적 의지’는 대중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옥죄는 위계질서를 타격하여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내는 것이 사회주의자 혁명이라고 바라본다. 그렇기에 ана키스트 총동맹의 목적은,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의 결정을 행정적으로 돕고, 모든 위계질서에의 타격에 대한 전술적 조력을 제공하고, 대중의 주도권을 편취하고자 하는 다른 이데올로기 — 정당들에 맞서는 것에 있다.

『강령』의 방법론이 불세비키의 그것을 일부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단결한 하나의 조직이, 통일된 전술적 방법론으로 대중을 추동해내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보면, 대중을 조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론인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재건하여 버렸다고 해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대중을 배신하였다고 하여도, 불세비키는 1917년 10월, 대중을 조직하여 혁명에 성공했다. 그 볼린마저도, 당시 불세비즘의 대두가 당연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온건한 정부와 정당의 실패 후에 노동 대중이 남아있는 마지막 정당으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두려움 없이 사회혁명을 바라본 유일한 정당. 권력이 주어졌을 때 기존의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행복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한 유일한 정당. 불세비키가 바로 그 정당이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다른 이데올로기와 등치하는 것은 그 방법론적 일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요체의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한